



# 찾았다! 구름 방울

이현주 그림책

오늘책 | 42쪽 | 14,000원 | 대상 : 4~7세

#엄마 구름 #아기 구름 방울 #숨바꼭질 #놀이 #자연

## 포근한 엄마 구름과 귀여운 아기 구름 방울들의 다정한 숨바꼭질 놀이

간질간질, 장난꾸러기 구름 방울들이 쿨쿨 잠든 엄마 구름의 코를 간지럽혀요. 엄마 구름이 커다랗게 “에취!” 재채기를 하자, 구름 방울들은 온 세상으로 멀리멀리 퍼져 날아가지요. “나 찾아 보라!” 여기서 들리는 구름 방울들의 소리를 따라, 엄마 구름이 귀를 쫑긋 세우고 동실동실 떠 가요. 엄마 구름은 과연 온 세상 곳곳에 숨은 구름 방울들을 모두 찾아낼 수 있을까요?

종어연(종아서 하는 어린이책 연구회)은 초등 교사들로 이루어진 어린이책 연구회입니다.  
이 글은 대표 이현아 선생님이 집필하였습니다.

종어연 × 오늘책  
종어연은 어린이책 연구회

## 활동 1 표지 관찰하며 짐작해 보기



1 표지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면,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.

1 수많은 구름 방울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?

---

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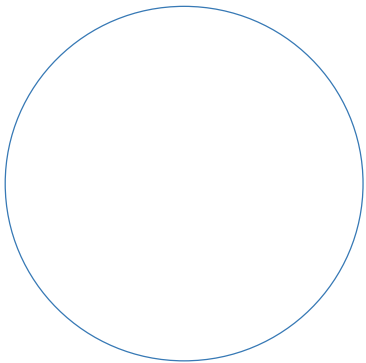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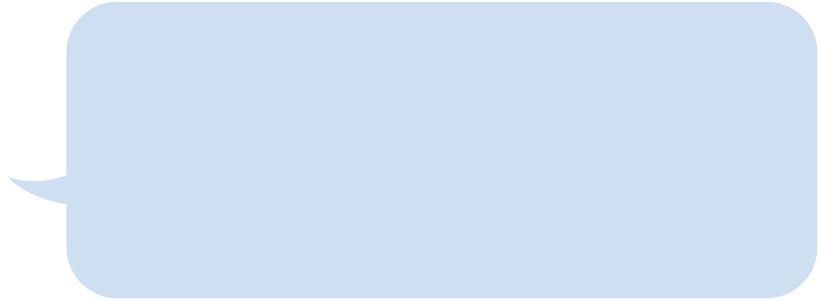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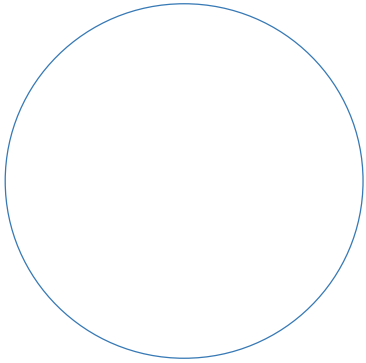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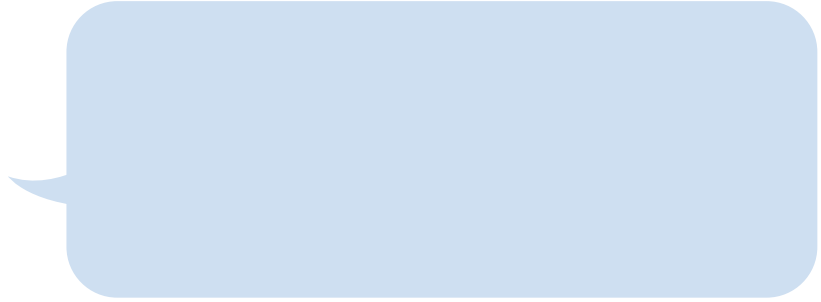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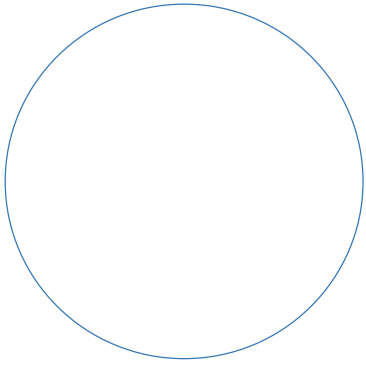
2 구름 방울들이 뿜어져 나오는 아래쪽 검은 부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?

---



---

- 2 구름 방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, 그중 재미있는 표정들을 아래에 그려 보세요.  
그리고 구름 방울들이 어떤 기분일지, 어떤 말을 할 것 같은지 말풍선에 써 보세요.



- 3 제목 <찾았다! 구름 방울>을 보고,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예상해서 써 보세요.

---



---

## 활동 2 책의 내용 확인하기

- 1 책의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의 질문에 ○, X로 답해 보세요. 그리고 X의 올바른 답이 무엇인지도 말해 보세요.

1 엄마 구름이 졸고 있을 때, 아기 구름 방울들은 엄마 구름의 코를 간질이며 장난을 쳤어요.



2 구름 방울들은 엄마 구름의 허락을 받고 여행을 떠났어요.



3 엄마 구름은 하늘에서 보송보송한 새의 깃털 위에 앉아 있는 구름 방울들을 찾았어요.



4 엄마 구름은 풀밭에서 활짝 핀 꽃들 사이에 숨어 향기를 맡고 있는 구름 방울들을 찾았어요.



5 엄마 구름은 진흙 속에서는 구름 방울들을 찾지 못했어요.



6 바닷속에 있던 구름 방울들은 무지개를 타고 엄마 구름의 품으로 돌아왔어요.



2 책의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 보세요.

1 엄마 구름이    를 하자, 구름 방울들이 사방으로 날아가 버렸어요.

2 길 위를 날아가던 엄마 구름은 활짝 펼친   에 매달린 구름 방울들을 찾았어요.

3 엄마 구름은 지붕 위에 있던    의 수염에 내려앉아 있는 구름 방울들을 발견했어요.

4 땅속 진흙 틈에 숨은 구름 방울들은 그곳에 있던    와 반갑게 인사했어요.

5 바다에서는   가 재채기를 해서 구름 방울들을 하늘로 휙휙 날려 보냈어요.

활동 3

# 어디 어디 숨었나?

- 1 구름 방울들은 다양한 장소에 숨어 있었어요.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여러 장소와 구름 방울들의 상황을 보고, 알맞은 것끼리 서로 짝을 지어 보세요.

하늘

•

고래가 재채기를 하자  
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어요.

•

길

•

조롱조롱 활짝 핀 꽃들  
사이에 숨어 향기를 맡았어요.

•

지붕

•

활짝 펼친 우산에  
매달려 있었어요.

•

풀밭

•

지렁이와 반갑게 인사했어요.

•

땅속 진흙

•

고양이 수염 위에 앉아  
무서워했어요.

•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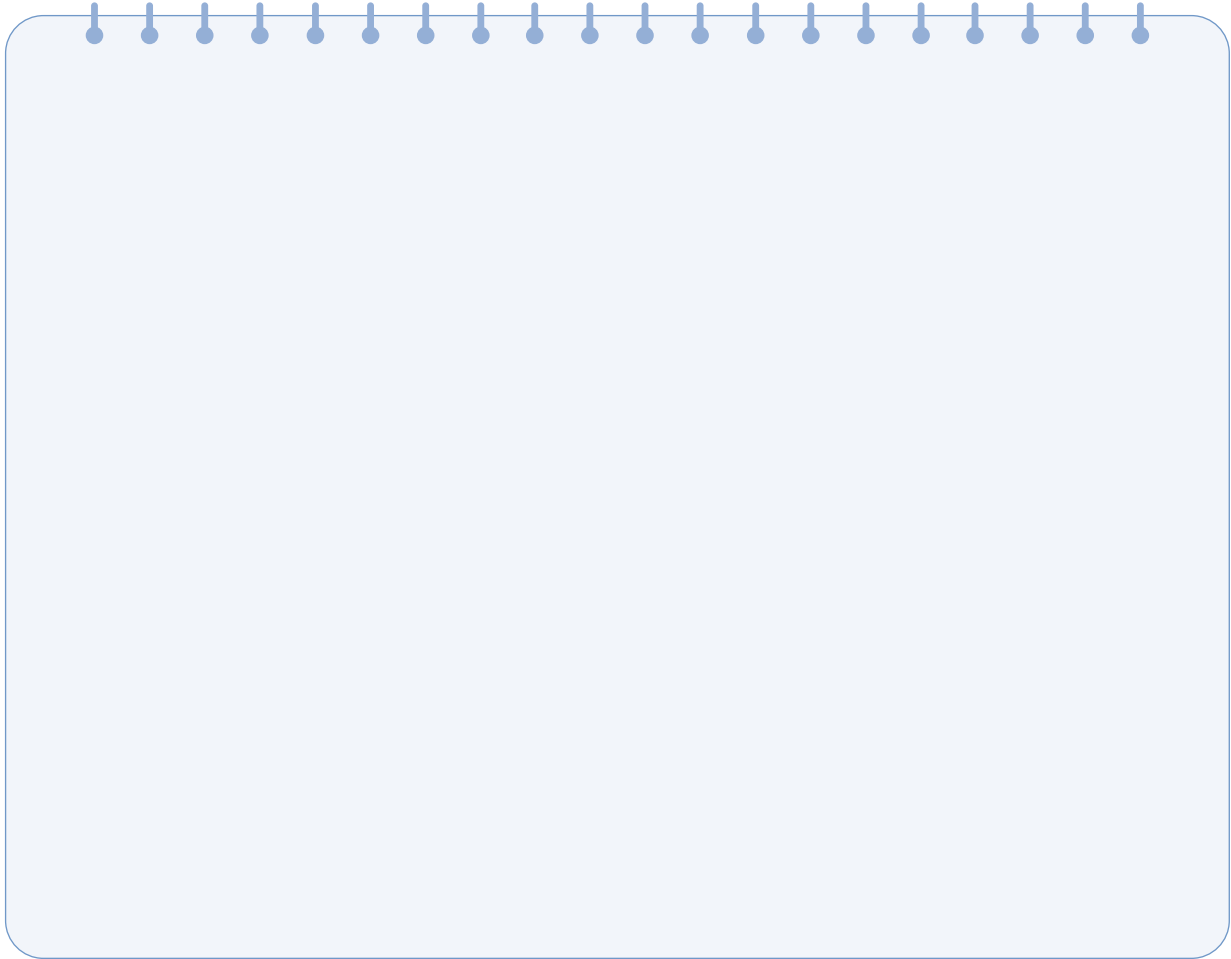
바다

•

보송보송한 새의 깃털 위에  
앉아 있었어요.

•

- 2 내가 구름 방울이라면 어디에 숨고 싶나요? 상상한 장소와 숨은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.



- 3 왜 그곳을 골랐는지 이유를 써 보세요.

---

---

---

활동 4

# 의성어·의태어 사전

- 1 책 속에는 소리와 모양을 재미있게 표현한 말들이 나와요. 이런 말을 의성어·의태어라고 해요. 책 속 장면마다 가장 어울리는 의성어·의태어를 <보기>에서 찾아 써 보세요.

보기

슬금슬금

보송보송

와글와글

간질간질



엄마 구름의 코를

간지럽혀요.


    한

새의 깃털 위에 앉아요.



지붕 위를

넘어가요.



땅속 진흙 틈에

모였어요.

- 2 비슷한 맥락에서 쓰이지만 의미는 조금 다른 의성어·의태어들이 있어요. 문장을 잘 읽고, 밑줄 친 자리에 들어갈 만한 또 다른 의성어·의태어 표현을 생각나는 대로 써 보세요.

우산 끝에 구름 방울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.

→ (예시: 조롱조롱)

.....

고양이 수염 위에 내려앉은 구름 방울들이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.

→ (예시: 덜덜덜)

.....

엄마 구름이 미끄덩미끄덩한 진흙 위를 날아가요.

→ (예시: 질퍽질퍽)

.....

땅속 지렁이 곁에 구름 방울들이 와글와글 모여 있어요.

→ (예시: 바글바글)

.....

- 3 주어진 대상과 어울리는 의성어·의태어를 써 보세요. 그리고 그 느낌을 그림으로도 표현해 보세요.

대상	고양이
어울리는 의성어·의태어	

대상	지렁이
어울리는 의성어·의태어	

활동 5

# 책 속 장면과 물의 순환 연결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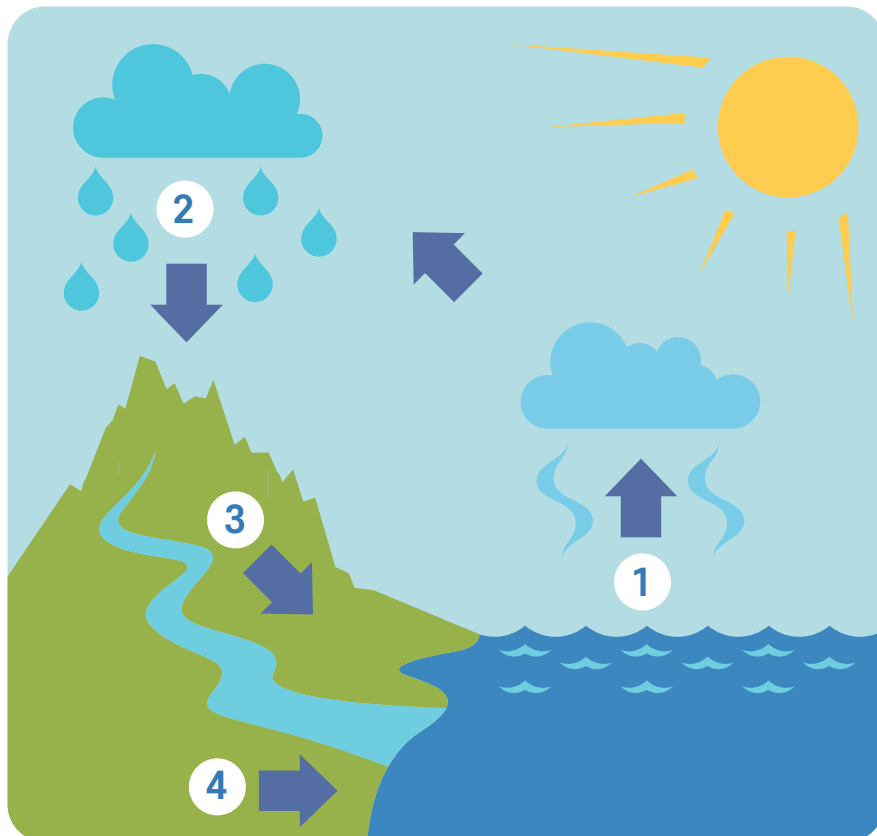
- 1 구름 방울들이 엄마 구름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과학의 ‘물의 순환’과 연결해 보세요. 책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 속 알맞은 번호를 빈칸에 써 보세요.

엄마 구름이 “에취!” 하고  
재채기하자  
구름 방울들이 쏟아져요.

구름 방울들이  
하늘, 길, 지붕, 풀밭 등  
다양한 장소를 지나요.

땅속에 스며든  
구름 방울들이  
바다까지 흘러가요.

바닷속에 있던 구름 방울들이  
다시 엄마 구름의  
품으로 돌아가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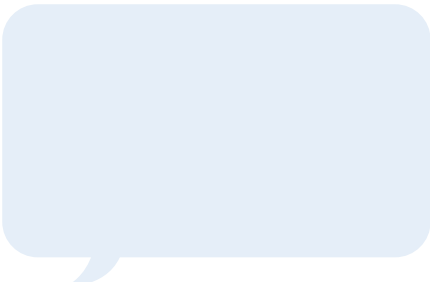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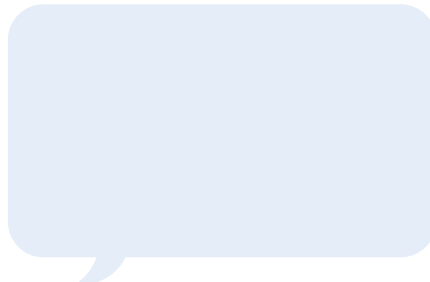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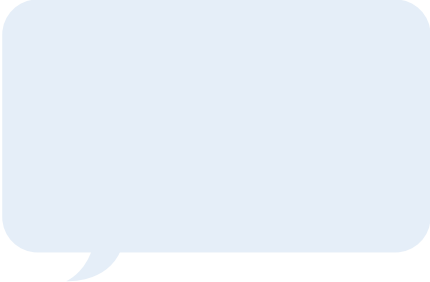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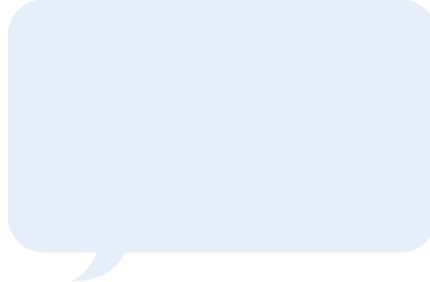


2 ‘구름 방울이 떠난 물의 여행’을 주제로 네 칸 만화를 완성하세요. 그림을 그리기 전, 아래의 질문에 답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구상해 보세요.

1 물의 여행을 떠나는 구름 방울이 어디에서 시작해서, 어느 장소를 지나, 어디에 도착할지 상상하며 각 장면의 장소를 정해 써 보세요.

① (예시: 하늘, 산, 공원, 강, 도시 등)	②
③	④

2 각 장면마다 구름 방울은 어떤 말을 할까요? 말풍선 대사를 써 보세요.

① 	② 
③ 	④ 

3 앞의 1, 2번 내용을 바탕으로 네 칸 만화를 그려 보세요.

만화 칸 구성 예시

- ①칸: “예취!” 재채기하는 엄마 구름과 비로 내려오는 구름 방울 그리기
- ②칸: 길, 지붕, 풀밭, 진흙, 바다로 내려가 여기저기 숨어 있는 구름 방울 그리기
- ③칸: 햇볕이나 고래 분수 덕분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구름 방울 그리기
- ④칸: 다시 엄마 구름 품에 모여서 포근히 잠드는 구름 방울 그리기

①	②
③	④